

# 중기 경영활동 순이익 부분 소폭 영향

### '최저임금 적용효과 설문조사' 결과... 제품가격·질·신기술 도입 측면 큰 변화 없어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최저임금 인상을 보인 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순이익 부분만 소폭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7%를 넘긴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 인상은 12.3%, 2008년 8.3%, 2014년 7.2% 등이었다.

2007년의 경우 이듬해 사업주 설문에서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 후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순이익' 부분에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순이익,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순이익은 평균 2.7%, 제품가격은 3.02, 제품 질은 3.05, 신기술 도입은 2.99의 점수로 나타났다.

점수는 '크게 증가 5, 증가 4, 보통 3, 감소 2, 크게 감소 1'로 수치화했다.

또 보고서는 "평균 점수로 본다면, 제품(서비스) 가격은 약간 올랐고, 제품(서비스) 질도 약간 증가했으나 신기술 도입은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오히려 오르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인상을 보인 2008년의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조사한

2009년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업체들은 순이익에서만 평균 2.75의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 등에서는 각각 평균 3.04, 3.06, 3.00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2014년 최저임금 상승 영향에 대한 2015년 보고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이익 부분에서만 평균 2.53의 점수가 나왔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품 가격 등 3.07점이 나오는 등 '보통' 응답에 해당하는 3점 초반대 점수가 나왔다.

해당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적용됐던 최저임금액 수준의 인상으로 순이익(이윤)의 변화가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업체가 53.24%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이다.

이번 설문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내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중소기업회는 논평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감감을 갈수록 줄어든다"고 밝혔다.

/뉴스1

##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 9분만에 '완판'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Kakao Mini)가 정식 판매 9분만에 완판됐다. 카카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모바일 커머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카카오미니를 정식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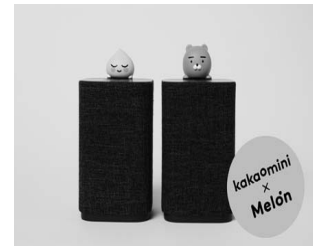
카카오미니는 정식 발매 시작과 함께 주문량이 급증하며 9분만에 준비된 수량 1만5000대가 모두 팔렸다.

카카오는 디지털음악플랫폼 멜론의 정기 결제 이용자에게 카카오미니를 희망소비자가격에서 58% 할인된 4만9000원에 판매하는 가격 혜택을 제공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멜론 신규 가입자나 정기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멜론 가입자도 카카오미니(4만9000원)와 '멜론 스트리밍 클럽' 6개월 할인쿠폰(4만원, 정가 대비 23% 할인) 패키지를 8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구매 고객 모두에게 카카오미니 전용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1종(라이언, 에피치 중 선택)을 제공했다.

카카오는 국내 1위 음악서비스 멜론을 인수한 효과를 이번엔 톡톡해 봤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멜론의 유료가입자는 44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미니는 ▲멜론 음악 데이터베



이스와 카카오 TV 추천형 엔진이 구현한 강력한 추천 ▲메시지 전송, 재생 중인 음악·뉴스 공유 등 카카오톡 연동 ▲실제 대화처럼 앞에 대화한 내용을 기억하고 답변하는 맥락(Context) 이해가 특징이다.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미니에 ▲택시 호출 ▲길 안내 ▲음식 주문 ▲장보기 ▲번역 ▲어학 ▲금융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미니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다"며 "이달 중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재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게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



## 전북농협, 역대 본부장 초청 간담회

전북농협·농협, 발전 방향 업무보고 청취

전북농협은 7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역대 본부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농협 역대 본부장 12명과 각 법인대표, 지역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농협과 농협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북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농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농업·농촌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이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전 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이 33년간의 인후통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효자동 시대를 열었다"면서 "농업·농촌을 위한 열정과 농업인의 신뢰와 참여로 범농협간 화합을 통해 전북도 산란농정과 발맞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뉴스1

## 국민 3명중 1명 "노후 준비 하고 있지 않다"

우리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3분 1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34.6%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0.1%포인트 줄어 들었다. 하지만 세부 항목으로 보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에서 39.1%로 높아졌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에서 33.3%로 낮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19~29세는 59.1%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은 45.7%가 이같이 답했다.

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 40대, 50대에서도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30대는 26.2%, 40대는 20.5%, 50대는 21.0%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자(28.7%)보다 여자(40.2%)가 노후 준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53.3%)로 가장 높았고, 예금적금(18.8%), 사적연금(9.8%), 기타 공적연금(8.8%), 부동산 운용(5.4%), 퇴직급여(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부모 부담 완화는 변화가 감지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30.6%로, 2년전(31.6%)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69.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로는 '독립 생활 가능'이 31.4%로 가장 높았고,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29.4%),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8.7%)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동거여부에 대해서도 22.2%만 동거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2년전보다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뉴스1

전주매일 www.jjmaeil.com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맞춤형 절세 유의사항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려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액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신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 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 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총 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